여수 장수리와 평사리 방풍림의 식물상과 관리방안

Vascular plants and management proposal for the windbreaks at Jangsoo-ri and Pyeongsa-ri, Yeosu City, Korea

오현경[1*] · 김용식[2] · 김도균[3]

[1]천리포수목원 자원식물연구소 · [2]영남대학교 자연자원학부 · [3]호남대학교 환경디자인공학부

Ⅰ. 연구목적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와 돌산읍 평사리 방풍림의 사회 · 인문환경이나 자연환경 및 관리실태와 훼손현황을 조사하여 방풍림 보호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보호관리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체계화된 보전전략과 향후 방풍림 조성시 관리방안을 강구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Ⅱ. 연구방법

1. 조사지 개황

본 연구는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방풍림과 돌산읍 평사리 방풍림 2개소를 연구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표 1. 조사대상지 개황

방풍림	위 치	면 적	수 령	개체수	천연기념물
장수리 방풍림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자매마을	약 6천㎡	50~300년	6,000	미지정
평사리 방풍림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계동마을	약 2천㎡	50~300년	1,000	미지정

(1) 장수리 방풍림

본 방풍림은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자매마을 어귀에 위치하며, 물건리 방풍림처럼 초승달 형태의 해안으로 바람과 해일로 인한 마을과 농경지를 보호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조성된 숲이지만, 천연기념물이나 보안림으로는 지정이 안 된 곳이다.

(2) 평사리 방풍림

본 방풍림 역시 천연기념물이나 보안림으로 지정이 안된 곳으로 앞에서 언급한 장수리 방풍림보다 훼손이 심한 지역이며,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계동마을 포구 우측에 있는 규모가 비교적 작은 방풍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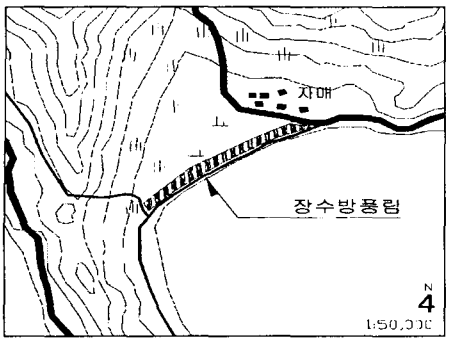

그림 1. 장수리 방풍림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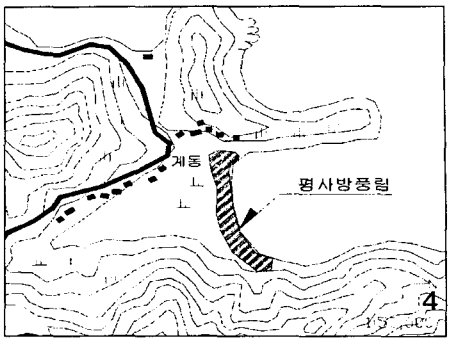

그림 2. 평사리 방풍림 위치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조사 대상지인 장수리 방풍림과 평사리 방풍림을 현지조사하여 자연환경조사나 훼손 실태, 보호관리 방안 모색 등을 수행하였으며, 인문환경조사는 여러 문헌이나 현지 주민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정리하였다.

(1) 조사방법 및 기간

조사 기간은 1차적으로 2001년 8월 12일부터 8월 16일까지 예비답사와 전반적인 식생, 훼손지를 파악하였으며, 2002년 5월 6일부터 5월 10까지는 식물상과 식생 그리고 인문환경조사 등 2차 조사를 수행하였고, 2002년 7월 24일부터 7월 28일까지 식물상과 식생, 관리실태나 훼손현황을 중점으로 3차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끝으로 2002년 10월 1일에서 5일까지 추가조사 및 종합적인 문제점이나 보호관리방안 등 총 20일간 조사를 실시하였다.

(2) 사회 · 인문환경조사

방풍림이 속해 있는 지역의 면적, 인구현황조사와 각 대상지 부근 마을의역사적 사건이나 전해내려오는 전설, 민간 신앙, 마을주민들이 신성한 나무로 숭배하고 있는 서낭나무(神木), 당산목(堂山木) 등에 관하여 여러 문헌이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사하였다.

(3) 식물상조사

각 조사 대상지를 현지 조사하여 전반적인 식물상 개황과 출현 식물종, 귀화식물(재배, 식재종 포함)을 파악하여 정리하였다.

▪ 특정식물종

각 대상지의 관속식물상을 조사한 후 환경부 조사지침(전승훈, 1997)의 특정식물종 평가 기준과 이를 토대로 2001년 국립공원관리공단 자연생태연구소에서 보완된 목록을 기준으로 특정식물종을 분석 정리하였다.

(4) 관리 실태와 훼손 현황

현지 조사하여 관리 실태와 훼손 현황을 파악하고, 인근 마을 주민들로부터 면접방법, 관리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장수리 방풍림

(1) 사회·인문환경조사

장수리 방풍림이 있는 여수 화양면은 인구수가 7,800여명이고 면적이 70.04㎢로 선사시대때부터 사람들이 거주하였다는 고인돌 200여기의 흔적이 있는 고장이다.

이 곳 방풍림은 앞에서 언급한 물건리, 미조리 방풍림처럼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천연기념물이나 산림법에 의해 지정된 보안림에도 포함이 안된 마을 어귀의 숲으로 조성역사는 알 수 없지만 당시 마을 사람들이 해풍이나 비사 방지, 바다에 그늘을 제공하여 풍부한 어장을 만들고자 숲을 조성했으나, 8~10년전 태풍에 동반된 파도의 비산이 방풍림 하부를 통과하여 뒷편 들판의 벼농사에 큰 피해를 주자, 이때 마을사람들은 방풍림이 훼손되면 마을에 악귀와 흉년, 저주를 받는다고 생각하여 현재 마을 주민들이 잘 관리 보호하고 있다.

(2) 식물상 조사

장수리 방풍림은 10년 전 까지만 해도 이곳으로 가는 길이 험하여 차량 접근이 어려워 기존의 연구는 거의 없었던 실정으로, 본 연구에서 조사한 결과, 출현하는 유관속식물은 72과 139속 168종 23변종 4품종 총 195종류(Taxa)로 연구 대상지 중 가장 많은 식물종들을 확인하였다.

▪ 특정식물종

본 조사에서 확인된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종은 등급별로 구분한 결과, 1등급에는 17분류군, 3등급은 5분류군, 5등급에는 1분류군으로 도합 23분류군이 확인되었지만, 5등급인 약모밀(*Houttuynia cordata*)은 민가 부근에서 재배를 했던 것이 야화(野花)되어 특정식물종으로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었다.

(3) 관리 실태와 훼손 현황

장수리 방풍림은 산림법이나 문화재보호법으로 보호관리 되고 있지 않으며, 조상이 남긴 문화적 유산의 기능과 효과에 대한 국민과 행정기관의 인식부족으로 인해 숲의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다.

마을 주민들은 방풍림이 훼손되면 마을에 재앙이 생길것으로 생각하고 방풍림 보호를 위해 가옥이 많지 않은 부분에 보호망(철책)을 설치하고 출입금지라고 적힌 경고판을 세웠다.

이 숲은 해안과 방풍림 경계부분이 과거에는 2~3명 정도의 통행이 가능한 소로(小路) 이었지만, 8~10년 전에 신작로를 개설하면서 인위적으로 매립하여 직각으로 높이 2m정도로 옹벽 처리함에 따라 파도가 완화 작용을 하지 못하고 바로 방풍림과 인근 마을, 농경지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또한, 몇년전에 여천군청(현 여수시청)에서 마을림을 보호하고 공원화하기 위해 수림 내부에 화장실이나 오수 정화조, 음수대, 벤치 등을 설치하여 인근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였지만 현재 관리가 미흡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오히려 흉물이 되어 주변에는 쓰레기가 쌓이면서 악취나 여러 병해충이 모이면서 인근 마을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

방풍림의 1/2 정도가 가옥이나 마을 회관, 교회, 마을 오수처리장, 마을 도로 콘크리트 포장 등으로 이용되고 있어 방풍림이 시설물에 의해 잠식되어지는 가속화가 진행중이다.

2. 평사리 방풍림

(1) 사회 · 인문환경조사

평사리는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도에 위치하고 있는 방풍림으로 71.7㎢의 면적과 16,000여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 남단에 위치한 도서로써 2개의 유인도와 20개의 무인도로 형성되어 있으며 온대 계절풍 기후 지역으로 겨울에도 따뜻하여 살기 좋은 고장이며, 돌산 갓을 비롯한 무공해 농산물 생산과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공동어장을 중심으로 한 연근해 어업과 양식업이 발달한 곳이다.

이 곳 또한 장수리 방풍림처럼 산림법이나 문화재보호법으로 지정 관리가 안된 곳으로 평사리 계동마을 해안에 조성된 어부림이자 방풍림으로 조성역사는 알 수 없지만, 대략 300년전 해풍과 비사의 방지와 좋은 어장을 확보하기 위해 조성된 숲으로 추정할 수 있다.

(2) 식물상 조사

평사리 방풍림에 출현하는 유관속식물로는 63과 124속 140종 13변종 2품종 총 155종류(Taxa)를 조사하였으며, 기존의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특정식물종

본 조사에서 확인된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종은 등급별로 구분한 결과, 1등급에는 19분류군, 3등급은 3분류군, 5등급에는 1분류군으로 도합 23분류군이 확인되었지만, 5등급인 왕벚나무(*Prunus yedoensis*)는 제주도 신예리(제 156호)와 봉개동(제 159호), 전남 대둔산기슭(제 173호) 부근 자생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한국특산식물이지만 본 대상지에서는 식재한 종으로 특정식물종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

(3) 관리 실태와 훼손 현황

장수리 방풍림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호로 행정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화장실이나 음수대, 보호망과 표지판 등 여러 시설물을 설치하여 마을 주민에게는 편익과 방풍림 주위에는 보호망을 설치하여 훼손을 막고 있지만, 이 곳 평사리는 보호망 하나 없이 방치되고 있을 뿐이다.

이 곳 숲안에는 정자(亭子)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 출입으로 인한 토양답압의 침식 피해가 심하고 각종 쓰레기가 쌓여 있으며, 소나 염소 등 가축을 방목하고 있어 이들의 배설물이 썩어 악취가 심하고 경관면에도 문제가 되고 있다.

방풍림 앞 해안쪽으로 건물이 있는데 이곳에서 어구(魚具)를 정비하고 그물을 말리고 있으며, 여러 철재물이 사방에 그대로 방치되어 각종 오염을 발생시키고 있다.